

“6人6色 보는 내내 유쾌했다”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종영



상상초월 ‘몸 개그’ 화제
“서로 아이디어 욕심 내”

청춘 6인방의 성장기와 로맨스는 마치 막까지 유쾌했다. 18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저녁 11시 방송한 JTBC 월화극 ‘으라차차 와이키키’ 마지막회 시청률은 2.081%(유료가구)로 집계됐다. 최종회에서는 동구(김정현 분)와 윤아(정인선), 준기(이이경)와 서진(고원희), 두식(손승원)과 수아(이주우)가 모두 사랑을 이루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젊은 층에서 호평받으며 막을 내린 JTBC 월화극 ‘으라차차 와이키키’에서 수아는 ‘여우 같은 꿈’이었다. 세련된 외모를 지녔지만 알고 보면 허당인 배우 이주우에게 ‘맞춤’이나 다름없었다. “수아가 예쁜 절, 지난 적하지만 알고 보면 6인방 중 가장 순수하잖아요. 저도 외모는 이렇지만 ‘허당’이 많아요. 그래서 수아가 된 것 같아요.(웃음)”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배우 이주우(28)는 “전작은 저녁 일일극이어서 어머니들이 종종 알아봐 주셨는데 ‘으라차차 와이키키’ 덕에 최근 젊은 분들도 많이 아는 척을 해주신다”며 “나이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재밌었다”고 말했다. 동구(김정현 분)의 전 애인 수아는 결국 두식(손승원)과 이뤄진다. 탭댄스를 추는 모습도 보고, 방귀도 트고 갖은 시련(?)을 넘어서. “승원이는 동갑인데 정말 좋은 친구예요. 승원이가 아니었다면 그런 웃긴 장면들의 재미가 덜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자로는 어떠냐고요? 음... 친구로서 최고죠. (웃음) 승원이 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남자도요. 하하.” 사실상 시트콤이다 보니 철저히 망가져야 하는 장면도 많았다. 이주우는 “처음에는 민망하기도 했는데 신기한 게 촬영할수록 욕심이 나더라. 나중에는 먼저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며 “다만 다들 인위적으로 웃기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 그랬더니 시청자들께서 더 웃어주시더라”고 말했다. 그는 함께한 배우들이 또래들이라 많이 친해졌다는 말에 “그렇다”면서도 이이경과 정인선이 교제 중인 것은 정말 몰랐다고 했다. “정말, 진짜로,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종방연에서 두 사람을 많이 놀렸죠.(웃음)” 데뷔 6년 차인 이주우는 “밝은 역할을 더해보고 싶다. 로맨스에서 작품의 맛을 살릴 수 있는 귀여운 역할도 탐난다”

며 “너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차차차 곡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으라차차 와이키키’는 세계로 ‘힐링 드라마’였다”며 “수십 번 대본을 읽고 연기한 저도 화면을 보면 또 웃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스타 캐스팅 없이 청춘 배우 6명으로 시작한 ‘으라차차 와이키키’는 시작 단계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때로 유쾌한 에피소드와 배우들의 코믹 연기에 힘입어 점점 입소문을 탔다. 덕분에 시청률도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1회 1%대에서 이후 2%대 안정적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고, 후속드라마 일정 변경의 영향이기는 했지만 4회 연장도 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으라차차 와이키키’의 웃음을 책임진 것은 이이경이었다. 그는 능청스러운 표정 연기에 더해 고원희와의 로맨스 연기도 무리 없이 소화해내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코믹 연기에 있어서는 전작 ‘고백부부’ 등에서부터 보여줬던 가능성을 이번엔 시원하게 터뜨렸다. 그가 소화한 특수메이크업과 확성 등 각종 분장과 뼈 먹기, 폴 댄스 시구 등 상상을 초월하는 ‘몸 개그’도 온라인에서 화제였다. 이밖에 다른 배우들도 청춘의 풋풋함과 유쾌함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

데뷔 20주년 프로젝트 기대해

‘명품 보컬’ 김범수, 히트곡 리메이크 작업

‘명품 보컬’로 불리는 가수 김범수(39·사진)가 데뷔 20주년을 앞두고 새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소속사 영엔터테인먼트는 김범수가 새로운 음악 브랜드 ‘메이크(Make) 20’ 프로젝트를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메이크 20’은 과거의 음악을 재탄생시키는 ‘리메이크’(Re-make),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는 ‘뉴메이크’(New-make), 다른 가수와 신선한 콜라보레이션(협업)을 보여줄 ‘위메이크’(We-make)를 골자로 한다. 김범수는 오는 26일 첫 싱글을 시작으로 총 스무 곡의 신곡을 차례로 들려줄 예정이다. 소속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 형태로 그치지 않는다”며 “과거로 되보이지 않고 대

중에게 새롭게 제시하는 음악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1999년 1집 타이틀곡 ‘약속’으로 데뷔한 김범수는 올해로 데뷔 19주년을 맞았다. ‘보고싶다’, ‘슬픔활용법’, ‘끝사랑’, ‘나타나’ 등 히트곡을 꾸준히 냈으며 2011년 MBC TV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발라드, 록, 라틴, 트로트 등 모든 장르를 소화하는 모습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2011년 1만석 규모의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시작으로 2012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미국 카네기홀, 2014년 호주 오페라하우스 등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치르며 화제가 됐다. 지난해 말 10년간 활동한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되면서 올해 초 1인 기획사 영엔터테인먼트를 차려 독립했다. /연합뉴스



MBC ‘봄날의 기적’ 진행 맡은 이영자

“장애인에 대한 편견 깨니 세상 보는 눈 달라졌죠”

내일 장애인의 날 특집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개그우먼 이영자(사진)가 MBC TV 장애인의 날 특집 프로그램 ‘봄날의 기적’을 진행한다. MBC는 오는 20일 오후 5시 50분 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한 ‘봄날의 기적’을 방송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송 중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도 마련돼 공감할 사항을 물어보고 장애인들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제작진은 이영자를 MC로 선택한 데 대해 “평소 푸근한 이미지에 더해 많은 선행을 해온 분이라 진행자로 제격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이영자는 몇 년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1급 장애를 가진 조카가 있다며 “나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내 편견을 깨고 나니 세상의 어떤 것도 상처가 되지 않더라”고 밝힌 바 있다. 제작진은 “장애인과 그의 가족이 겪는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에게 ‘봄날의 기적’에 참여하는 의미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TV스쿨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중계방송 제58주년 4.19 혁명 기념식 45 세계는 지금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55 중계방송 한국방송기자클럽 원내대표 초청 개천 토론회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방송기자클럽 교섭단체 원내대표 초청 개천토론회	00 인형의 집(재)		00 방송기자클럽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초청 개천 토론회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데일리뉴스 오작두(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토크보형설계 55 닥터 365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매가드	00 이웃집 찰스(재)		
2	20 안녕! 괴발개발 시즌2 50 팔도방송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30 에어로버	00 뉴스브리핑
3	00 노래가 좋아(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치원	00 드림 주니어 30 허하랜드 2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 방송연설	00 여행배를 로그인 코리아 55 지식 토크쇼
5	00 KBS 뉴스 5 12 KBS 뉴스 5(광주) 13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생일왕국의 프린세스 프링 2 15 토크타임 2 30 주간연예수첩	50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00 2018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막식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정글의 법칙(재)
7	00 KBS 뉴스 7 30 KBS 뉴스 7(광주) 35 한국인의 밥상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왓슨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속보이든TV 인사이드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 9 30 KBS 뉴스 9(광주) 45 KBS 뉴스 9			
10	00 KBS 스페셜 55 UHD 송터	00 추리의 여왕 시즌2	0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00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7080	10 해피투게더	10 이불 밖은 위험해	10 김여준의 블랙하우스 1~2부
12	45 해외결정드라마 디펜션, FBI 마술수사대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스포츠 다이어리 45 양로극 MBC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4월 19일(음 3월 4일 후일)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광양선순> <광양선순>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 07:30 띠띠뽀 띠띠뽀(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덩동덩 유치원 1~2 08: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8:45 람달라 뿌우 09:00 푹따맨 09:15 두다다(재) 09:30 플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매콤 재우버가)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3:00 지식채널e 13:10 장수의 비밀 (정수 활배의 애정 만세) 13:40 다크 시선 (사장은 무엇으로 사는가) 14:30 레인보우 루비 15:00 호기심 소녀 도트.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레전드이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16:30 람달라 뿌우(재) 16:45 덩동덩 유치원1~2(재) 1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사이언스타 Q 19:30 EBS 뉴스 19:50 부모성적표 <프로 규칙 엄마 VS 음서거 아들의 사랑과 전쟁>	20:40 세계테마기행 <우리가 몰랐던 이란 4부 사르카시(에드 가는 길)> 21:30 한국기행 <봄, 비바다 4부 예쁜 봄 맛있는 봄> 21:50 다크 시선 <은퇴해도 되나요> 22:45 다문화 고부열전 <인정받고 싶은 며느리, 애기하고 싶은 시어머니>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25:05 지식채널e 25:10 과학 다크비욘드(Beyon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여유를 부리고 있을 계기가 못되니라. 48년생 처음의 것이 가장 나으니 그것을 택하라. 60년생 과감하게 버려야만 한다. 72년생 상태는 양호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84년생 가 치 있는 일에 충실해야 하니라. 행운의 숫자 : 47, 88	午 42년생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라. 54년생 타놓고 얘기 해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66년생 외형상으로는 복집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 풍부해진 셈이다. 78년생 조리에 맞지 않다면 폐기하는 것이 옳다. 90년생 오류를 찾아내면 순행하겠다. 행운의 숫자 : 05, 66	丑 37년생 판단의 오류가 있기 쉽다. 49년생 충동을 자제한다면 여러 날 평안할 것이다. 61년생 조용히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흐름이다. 73년생 쉽지 않은 일을 갖으니라. 85년생 가장 절실한 부분에 확실히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50, 77	未 43년생 방법에 따라서 달라져 보이라. 55년생 복 속에 조그만 회의 불씨가 숨어 있다. 67년생 강도 높게 대처하지 않으면 오히려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79년생 서둘러야 겨우 끝낼 수 있다. 91년생 우연히 맞닥뜨릴 수도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06, 24
寅 38년생 허잖은 것에서 비롯된 불편함이 보인다. 50년생 참된 뜻을 알게 되는 진귀한 계기가 조성된다. 62년생 편견을 가진다면 단처가 생긴다. 74년생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라. 86년생 원칙대로 정확히 해야만 후회가 없다. 행운의 숫자 : 65, 72	申 44년생 의미를 부여할 이유 없다. 56년생 지켜보고 있으면 된다. 68년생 행복의 마당에 들어서는 길목에 놓여 있다. 80년생 요령을 활용하다보면 참신한 방법들을 연속적으로 터득하게 된다. 92년생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 하니 진보하라. 행운의 숫자 : 84, 11	卯 39년생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리라. 51년생 객관성을 유지하고 상응하는 관계 파악에 능해야 한다. 63년생 예측 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75년생 잠깐의 휴식이 더 많은 수확이 가능하게 하리라. 87년생 핵심 가치의 여부가 관건이다. 행운의 숫자 : 17, 55	酉 45년생 하늘의 도움이 크겠으니 품은 뜻을 펼쳐 보라. 57년생 직 접적이지 않다면 무의미하다. 69년생 의외로 결과는 빨리 나올 것이다. 81년생 체계를 인식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무탈하다. 93년생 상황을 잘 살펴 볼 후에 행하라. 행운의 숫자 : 34, 03
辰 40년생 우연의 고동이 상당할 것이다. 52년생 소신을 잃고 일관되 게 진행하여야 결실을 맺는다. 64년생 첫 단추를 잘 꿴 것이 중요하다. 76년생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어니 되겠다. 88년생 가 려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모순점을 낳는다. 행운의 숫자 : 96, 79	戌 34년생 얼떨결에 피해를 볼 수도 있다. 46년생 집중하다보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58년생 초기 상황을 무시하지 마라. 70년생 잘 살린다면 예상보다 많은 결실이 따른다. 82년생 진중하게 처리해야 할 때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8, 52	巳 41년생 대세는 기울었다. 53년생 골격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65년생 해악이 예상되던 끈끈하게 제거해야 한다. 77년생 사실은 별 것 아니니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 89년생 기본에 충실해야만 타격을 현안에 대비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2, 30	亥 35년생 강력한 세력에 휩쓸려 가는 상국이다. 47년생 우려할 만한 일이 보이니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59년생 별 것 아니니 놀랄 것 까지는 없다. 71년생 한 결음을 앞으로 나가게 된다. 83년생 변화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42, 56